

백제사에서의 興法과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의미

An Analysis of the Article 'Beobwanggeumsal(法王禁殺)' in the Samgukyusa(三國遺事) in Light of the Progression of Heungbeop(興法) in the History of Baekje(百濟)

저자 (Authors)	박현숙 Park, Hyun-sook
출처 (Source)	신라문화 43 , 2014.2, 207-226 (20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3 , 2014.2, 207-226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98121
APA Style	박현숙 (2014). 백제사에서의 興法과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의미. 신라문화, 43, 207-22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3 16: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백제사에서의 興法과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의미*

박 현 숙**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II.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의미 |
| II. 백제사에서 興法の 전개 양상 | V. 맺 음 말 |

[국문초록] 『삼국유사』 「흥법」편에서는 백제의 불교 수용을 다룬 ‘難陀闍濟’조와 불교 진흥책을 기록한 ‘法王禁殺’조를 두어 백제사의 興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법왕금살’조는 ‘難陀闍濟’ 이후 백제사에서 興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백제사에서 적극적으로 불교진흥책을 펼쳤던 성왕·위덕왕·무왕이 아닌 법왕을 『삼국유사』 「흥법」편에서 興法の 왕으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첫째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사료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法王이라는 왕호에 주목해 보았다. 신라의 法興王과 백제의 法王이라는 왕호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신라의 법흥왕과 백제의 법왕은 시호 뿐 아니라, 불교 진흥책에 있어서도 ‘禁殺生命’이라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 찬자는 백제 法王을 신라 法興王에 비견되는 興法の 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는 나름의 합리적인 고증을 시도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려고 한 역사서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 「흥법」편은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삼국사기』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삼국시대 불법의 성쇠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정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백제사의 「흥법」과 관련하여 ‘법왕금살’조를 설정한 것

* 본 논문은 제 41회 신라문화제 제 35회 학술회의 《『삼국유사』 「흥법」편 연구: 삼국의 초전불교와 그 특징》(2013년 10월)에서 발표한 <백제사의 관점에서 본 『三國遺事』 「興法」의 ‘法王禁殺’條>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이다. 『삼국유사』 「흥법」 편은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영문초록] The part of 'Heungbeop' in the the Samgukyusa consists of two articles, one of which, entitled as 'Nantabyeokje,'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Baekje and the other of which, entitled as 'Beopwanggeumsal,' deals with the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Buddhism taken by Baekje. This shows that the book considers the two subjects to be significantly relevant to the 'Heungbeop' in Baekje. Especially the event recorded in the article of 'Beopwanggeums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relation to the 'Heungbeop' in Baekje, which is why the Samgukyusa spared a separate article for the event.

Therefore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Samgukyusa, in the part of 'Heungbeop' focused on Beopwang(法王) instead of Seongwang(聖王), Wideokwang(威德王), and Muwang(武王), who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Buddhism in Baekje.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part related to the 'Heungbeop' the Samgukyusa was written mainly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Samguksagi. Secondly, the title 'Beopwang' itself probably drew attention from the editors of the Samgukyusa. The title 'Beopheungwang(法興王)' from Silla and the title 'Beopwang' from Baekje certainly have something in common. Not only did both kings have Buddhist names but also they led a lifestyle that conformed to the Buddhist principle of 'Geumsalsaengyeong(禁殺令).' Thus it is possible that the editors of the Samgukyusa perceived Beopwang of Baekje as someone comparable to Beopheungwang of Silla in terms of 'Heungbeop'.

The Samgukyusa is mainly concerned with Buddhism itself rather than its relations to the state. It is also a historical text that was designed to deliver concrete historical facts obtained through historical research. The part of 'Heungbeop' in the book was a record of the important events related to the propagation of Buddhism in the three kingdoms that had been omitted in the Samguksagi. The 'Heungbeop' part is important in that it allows us to se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with a understanding of Buddhism.

[주제어] 삼국유사(Samgukyusa), 흥법(Heungbeop), 법왕금살조(Beobwanggeumsaljo), 법왕(Beopwang), 성왕(Seongwang), 위덕왕(Wideokwang)

I. 머리말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7년(1281) 경에 一然 스님이 陳田寺를 떠나기 전인 23세 무렵부터 50여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집대성한 역사서로¹⁾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의 백제사 관련 사료들은 신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백제의 왕력에 대한 것, 삼한과 백제의 건국에 관한 것, 백제의 부여 계승의 문제, 불교 전래 문제, 백제 관련 지명, 무왕과 서동요, 대외 관계, 백제의 문화,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 등이 그것이다. 『삼국사기』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산견된다.²⁾

『삼국유사』는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1편 「王曆」과 제 2편 「紀異」가 일반 史話라고 한다면 제 3편 「興法」 이하의 7편은 불교 史話이다. 따라서 불교 사화 가운데 「홍법」편은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셈이다. 『삼국유사』 「홍법」편에서 백제의 홍법과 관련해서는 枕流王 원년(384년)의 불교 수용을 다룬 「難陀關濟」조와 범흥왕대의 불교 진흥책을 기록한 「法王禁殺」조가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 이 두 사건을 백제사의 興法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침류왕 원년(384년)과 2년(385년)에 백제 불교 수용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 이후,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興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 웅진시기인 法王代의 홍법 이야기가 실린 『삼국유사』 「홍법」편의 「法王禁殺」조는 주목해 볼만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백제사에서의 홍법의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法王이 불교의 不殺生戒律에 충실하여 수렵과 어로기구를 모두 불사르는 등 禁殺을 왕명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삼국유사』 「홍법」편 「法王禁殺」조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백제 웅진시기의 興法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은 法王이기보다는 聖王이나 威德王, 또는 武王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백제사의 「興法」의 왕으로 왜 法王을 선택하여 「法王禁殺」조를 「홍법」편에 배

1) 鄭求福,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 11.

2) 朴賢淑, 「『三國遺事』 「卞韓百濟」條에 투영된 百濟史 認識」, 『百濟研究』57輯, 2012, p. 115.

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왕조에 보이는 왕흥사 건립과 미륵사 이칭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또한 백제사에서 興法の 전개 과정 속에서 ‘法王禁殺’조가 『삼국유사』 「홍법」편에 설정된 이유를 고찰해 봄으로써 『삼국유사』의 사서적 특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백제사에서 興法の 전개 양상

『삼국유사』 「홍법」편의 ‘順道肇麗’, ‘難陀闢濟’, ‘阿道基羅’는 삼국시대 불교의 도입을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불교의 도입 이후, 각 나라에서의 興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건을 두 가지씩 정리해 놓은 것이 「홍법」편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삼국유사』에서 불교 사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로 「홍법」편을 든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며,⁴⁾ 「탐상」편부터 「효선」편까지 서술되어 있는 신라 불교의 발전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법」편이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

「홍법」편에서 백제의 홍법과 관련해서는 ‘難陀闢濟’조와 ‘法王禁殺’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침류왕 원년(384년)의 불교 수용 이후, ‘法王禁殺’조가 백제 興法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관련 기록들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A-① 침류왕 원년(384). 가을 7월에 쓸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9월에 胡僧 마라난타가 쓸나라로부터 이르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우하니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② 침류왕 2년(385). 봄 2월에 한산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 ③ 아신왕 2년(393).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였다. 또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3) 6조 이외에 홍법 편의 「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조는 탐상 편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金福順, 「『三國遺事』 「興法」篇과 中古期の 설정」, 『慶州史學』19, 2000, p. 84.

4) 李基白, 「『三國遺事』 興法篇의 趣旨」, 『震檀學報』89, 2000, p. 1.

5) 金福順, 앞의 논문, 2000, p. 101.

- ④ 아신왕 11년(402).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왕이 몸소 횡악에서 기우제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
- ⑤ 전지왕 2년(406).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죄인들을 대사하였다.
- ⑥ 동성왕 11년(511).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상 『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사료 A와 같이 枕流王의 불교 수용 이후 백제 왕실이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 불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다. 침류왕 원년(384)에 胡僧인 마라난타가 쑤나라로부터 와서 불법을 전함으로써 백제의 불교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침류왕은 재위 2년(385) 봄 2월에 한산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주며 興法에 힘썼다.⁶⁾ 그러나 11월에 침류왕이 죽게 됨으로써 興法의 숙원은 이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침류왕이 죽고 그의 동생 진사왕의 치세 동안에는 불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으나, 『삼국유사』에는 침류왕의 원자인 아신왕이 즉위하면서 그 해(392년) 2월에 “佛法을 높여 믿고 福을 구하라”는 교지를 내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⁷⁾ 그 뒤 한 동안 불교 관련 기록들은 찾아지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료 A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아신왕과 전지왕은 즉위 2년 봄 정월에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가뭄이 들자 아신왕은 횡악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동성왕도 11년 겨울 10월에 제단을 만들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백제사에서 침류왕대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왕의 즉위 의례 등 국가의 대소사는 불교보다는 여전히 전통적인 시조신이나 천지신, 산악 의례에 치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은 각각 天降神話를 낳고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그 시조에 대한 廟를 세웠으며, 이에 대한 제사의례를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⁸⁾ 백제 초기에는 이러한 祭祀儀禮를 내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고, 나아가 주변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이데올로

6) 이기백, 「백제 불교 수용연대의 검토」, 『진단학보』71·72합집, 1991.
 신종원, 「삼국의 불교 初傳者와 초기 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4, 2006.
 7) 『三國遺事』 「興法」 ‘難陀關濟條’.
 8) 차용걸, 「백제의 제천사지와 정치체제의 변화」, 『한국학보』11, 1978.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기로 확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료 A는 아직까지 백제에서 불교가 배타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백제의 전통적인 사회 모습에 문화적인 자극을 가져 온 것이 중국과의 교류, 그 가운데서도 梁과의 문화교류였다. 梁과의 활발한 교류는 무령왕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웅진시기 백제와 梁과의 교류에 관련된 기록들이다.¹⁰⁾

- B-① 무령왕 12년 (512년). 여름 4월에 梁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 ② 무령왕 21년 (521년). 겨울 10월에 梁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 ③ 무령왕 21년 (521년). 12월에 梁 高祖가 조서로 왕을 책봉하고 말하기를, “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 百濟王 餘隆이 해외의 번방을 지키면서 멀리 조공을 바치니, 그 정성이 지극하므로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날 법전에 의거하여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어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으로 책봉한다”라고 하였다.
- ④ 성왕 2년(524). 梁 高祖가 조서를 내려 왕을 책봉하여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大將軍 百濟王으로 삼았다.
- ⑤ 성왕 12년(534). 봄 3월에 梁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 ⑥ 성왕 16년(538). 봄에 사비로 도움을 옮기고 국호를 南扶餘라고 하였다.
- ⑦ 성왕 19년(541). 왕이 梁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하고 겸하여 표문을 올려서 毛詩博士와 涅槃 등의 經義와 工匠과 畫師등을 보내어 주기를 청하니, 梁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 ⑧ 성왕 27년(549). 겨울 10월에 梁의 서울에서 반란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상 『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

梁과의 외교를 통해 무령왕은 재위 21년(524)에 ‘使持節都督 百濟諸軍事 寧東大將軍’의 작호를, 성왕은 재위 2년(524)에 ‘持節都督 百濟諸軍事 綏東大將軍’의 작호를 받고 있다. 무령왕과 성왕은 梁과 교류하고 책봉을 받음으로써 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왕권의 안정화를 제고하였다. 웅진시기에 무령왕과 성왕은 중국 남조의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책봉을 받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고구려에 대한 견제와 함께 중국의 불교문화와 다양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료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웅진시기 백제와 梁의 관계는 정치적인

9) 朴賢淑, 「百濟 熊津時期的 정국과 大通寺」, 『韓國史研究』155집, 2011, pp. 175~176.

10) 朴賢淑, 위의 논문, 2011, pp. 177~179.

교류는 물론 성왕 재위 19년(541)에 毛詩博士와 涅槃 등의 經義와 工匠과 畫師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백제 성왕은 30년(552)년에 일본에 불상과 경론을 보내 주었다.¹¹⁾ 이와 같은 불교진흥책을 배경으로 창건된 것이 바로 성왕대의 大通寺라고 생각된다.¹²⁾ 한성시기 사찰의 조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웅진시기의 불교 관련 기록도 영세한 편이다. 공주지역에서 水源寺址, 銅穴寺址, 西穴寺址, 南穴寺址, 舟尾寺址 등이 모두 백제시대의 寺址로 전해져 오고 있으나, 실제로 발굴조사를 해 본 결과 이들 寺址는 모두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창건된 것임이 확인되었다.¹³⁾ 따라서 웅진시기 사찰의 창건 기록이나 유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흥법」편의 ‘原宗興法 厭讎滅身’조에는 웅진시기 사찰의 창건과 관련하여 ‘大通寺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¹⁴⁾ ‘原宗興法 厭讎滅身’조에서는 대통사의 창건 연대와 창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C. 범흥·진흥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사관이 쓰지 않은 것은 출가한 일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大通 元年 丁未에는 梁 武帝를 위하여 熊川州에 절을 세우고 그 절 이름을 大通寺라고 하였다. (熊川은 곧 공주이다. 그 때 신라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 정미년은 아닌 것 같다. 곧 中大通 元年 己酉에 세운 것이다. 흥륜사를 처음 세운 정미년에는 아직 다른 郡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흥법」 ‘原宗興法 厭讎滅身條)

사료 C의 기록에 따른다면, 527년에 신라의 범흥왕이 백제의 수도인 웅진에 양나라 황제를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 大通寺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사가 세워진 곳이 웅진이고, 웅진이 백제의 도읍이라는 상황 속에서 파악한다면 대통사는 범흥왕이 아니라 백제 성왕이 재위 5년(527년)에 창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⁵⁾ 그렇다면, 대통사는 백제 사찰 가운데 창건 연대와 그 흔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11) 『日本書紀』 卷19, 欽明 12년 겨울 10월조에 보면, 백제의 聖明王이 西部 姬氏 달솔 노리사치게 등을 보내 金銅釋迦像 1구, 幡과 日傘 역간, 經論 약간 권을 보내고 있다.

12) 朴賢淑, 앞의 논문, 2011 참조.

13) 趙源昌, 「公州地域 寺址研究」, 『百濟文化』28집, 1999, pp. 113~161과 이남석·서정석, 『大通寺址』,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公州市, 2000.

14) 신종원, 「『三國遺事』 原宗興法 厭讎滅身條 譯註」, 『겨레문화』10, 1996.

15) 李南奭, 「百濟 大通寺址와 그 出土遺物」, 『호서고고학』6·7집, 2002, p. 278.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찰이 되는 셈이다.¹⁶⁾ 백제는 고구려·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梁과의 교류에 적극성을 보일 수 밖에 없었으며, 외교적 필요에 의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興隆시킨 면이 없지 않았다. 백제 성왕은 불교를 통한 梁 무제의 왕권 강화 정책에도¹⁷⁾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왕이 재위 16년에 사비천도를¹⁸⁾ 단행한 것도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정치체제의 확립을 통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성왕은 그러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중흥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¹⁹⁾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대통사였던 것이다.²⁰⁾ 성왕은 대통사 창건을 통하여 왕권 강화와 이를 통한 백제의 불국토 건설이라는²¹⁾ 꿈을 계획하였을 것이다.²²⁾

이와 같이 法王 이전인 聖王代에 백제에서는 이미 불교를 진흥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통사 창건 등을 통해 흥법에 힘썼던 聖王의 불교치국책은 그의 불행한 죽음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후대의 왕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어 나갔다. 聖王에 버금가는 興法의 왕으로 威德王을 주목해 볼 수 있다. 威德王은 부왕의 사망 직후에 승려로 출가할 결의를 보였고,²³⁾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다수의 승려를 배출하고 대규모의 사찰과 사리탑을 연이어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崇佛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덕왕의 능사 조영과 왕흥사의 창건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는 위덕왕대의 능사 조영이나 왕흥사 창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 발굴을 통해 위덕왕대에 이루어진 興法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위덕왕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부왕인 성왕의 追福을 위해서 능산리에 옆에 국가적인 대규모의 원찰인 陵寺를 창건하고²⁴⁾ 목탑에 사리를 봉안하였

16) 이남석·서정석, 2000, 앞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대통사와 대통사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사와 관련된 참고문헌은 趙景徹, 「百濟 웅진 大通寺와 大通信仰」, 『百濟文化』36집, 2007, p. 32 참조.

17) 蘇賢淑,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2, 2009, p. 153.

18) 『三國史記』卷 26, 百濟本紀 4, 聖王 16年條, ‘春, 移都於泗泚【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19) 趙景徹, 「百濟 聖王代 儒佛政治理念」, 『韓國思想史學』15집, 2000, pp. 2~7과 조경철, 「동아시아의 불교식 왕호 비교」, 『한국고대사연구』43, 2006, p. 22.

20) 趙景徹, 앞의 논문, 2007과 朴賢淑, 앞의 논문, 2011 참조.

21) 김영태, 「미륵신앙」,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사, 1990.

22) 박현숙, 앞의 논문, 2011, p. 191.

23) 『日本書紀』卷19, 欽明 16년 8월조 기사 참조.

다.25) 그리고 100명을 출가시켜 공덕을 닦도록 하였다. 위덕왕은 성왕의 위업을 기리는 한편 능사의 조영을 통해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26)

아버지를 위해 567년에 능사를 완공한 위덕왕은 죽은 아들을 위해 577년에 원찰을 세우게 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법왕이 터를 닦고 무왕이 왕흥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부여군 규암리 신리 일대에서 ‘王興’이 새겨진 고려시대 기와 편이 수습됨으로써 이곳이 왕흥사지임이 밝혀졌다.

2007년 8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사리기와 많은 공양품들이 출토되었다.27) 사리기의 청동사리함에 사리봉안과 관련된 29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위덕왕이 재위 20년(577년)에 죽은 아들을 위해 立刹하고 사리를 봉안했음이 명문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28) 따라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과 달리 위덕왕대부터 왕흥사에 대한 立刹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덕왕대에 시작된 왕흥사 창건이 법왕을 거쳐 무왕 35년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 볼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법왕대의 왕흥사 창건은 위덕왕대로 소급될 여

24) 金壽泰, 「百濟 威德王代の 扶餘 陵山里 寺院의 創建」, 『百濟研究』27집, 1998.

25) 昌王銘 石造舍利龕 명문을 보면, 위덕왕 13년(567년)에 위덕왕의 누이인 妹兄公主가 陵寺에 사리를 공양하였다고 한다.

26) 金相鉉, 「百濟 威德王代の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扶觀音」, 『韓國古代史研究』15집, 1999.

27) 왕흥사지의 발굴조사는 2000년 9월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8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8차 왕흥사지 발굴조사는 2007년 3월 28일부터 시작하여 2007년 10월 24일에 공개되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왕흥사지 발굴조사 (제8차) 지도위원회 자료」 참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00년부터 8년 동안 이 사지를 발굴조사하여 동·서회랑지, 부속건물지, 백제시대 기와가마터 10기 등을 찾아냈다. 발굴 결과, 왕흥사지는 목탑-금당-강당과 동·서회랑을 갖춘 1탑-1금당의 가람배치를 한 사찰임이 밝혀졌다.

28) 청동사리함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丁酉年二月 十五日百濟 王昌爲亡王子 立殺本舍 利二枚葬時 神化爲三”. 명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2008; 金植植,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 『文化史學』28호, 2007; 손환일, 「백제 왕흥사지 출토 청동사리함명문의 서체」,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李道學,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 分析을 통해 본 百濟 威德王의 政治와 佛敎」, 『韓國史研究』142, 2008 ; 梁起錫, 「百濟 王興寺의 創建과 변천」, 『百濟文化』41, 2009;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 王興寺의 創建과 背景」, 『文化史學』29號, 2009; 길기태, 「百濟 威德王의 능산리 사원 창건과 제의」, 『백제문화』41, 2009; 조경철, 「백제 왕흥사의 창건과정과 미륵사」, 『史叢』70, 2010.

지가 있다. 물론, 법왕대에 위덕왕의 원찰을 왕흥사로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다.²⁹⁾ 그러나 왕흥사지 청동사리함의 명문 발견으로 왕흥사 창건과 관련한 법왕의 興法 의미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왕흥사의 창건은 왕실의 흥성과 왕권의 강화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덕왕은 능사 및 왕흥사의 조성, 그리고 일본에 불사리를 전하는 등 불교에 돈독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덕왕은 불교를 숭상하는 훌륭한 국왕이라는 의미로서 불경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불경에 보이는 용어가 그의 시호에 그대로 사용된 것은 불교적 이상군주를 지향하였던 위덕왕의 통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⁰⁾

武王代 역시 興法과 관련해서 백제사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법왕을 이어 즉위한 무왕은 전대의 국왕들을 이어서 적극적인 불교장려책을 펼쳤다. 『삼국사기』를 보면, “무왕 35년에 왕흥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³¹⁾ 무왕은 법왕대에 터를 닦아 놓은 왕흥사 건설을 34년이나 계속하여 재위 35년(634) 봄 2월에 드디어 완성한다.³²⁾ 그리고 무왕은 지금의 익산인 枳慕密地에 佛堂과 7층탑과 행랑을 갖춘 帝釋寺와 彌勒寺를 조영하였다.³³⁾

2009년에는 미륵사지 서쪽 석탑에서 舍利奉安記가 발견되었다.³⁴⁾ 명문에 의하

29) 梁起錫, 위의 논문, 2009, pp. 48~51쪽에서는 법왕대에는 위덕왕대 창건된 이래 완성을 보지 못했던 왕흥사에 대한 공역이 재개되었고, 이곳에 30명의 승려를 두어 금살생령을 시행하는데 왕흥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죽은 왕자의 추복을 위해 백제 왕실의 원찰이었던 왕흥사는 규모와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호국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적 규모로 변화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사원의 명칭이 왕권 강화의 의미를 담은 ‘王興’으로 명명되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법왕대 창건기사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0) 최연식, 「6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확산 과정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 불교문화와 백제』, 제 57회 백제문화제 국제학술대회. 2011, p. 64.

31) 『三國史記』권 27, 백제본기, 법왕 2년조 및 무왕 35년조.

32) 梁起錫, 앞의 논문, 2009, 51쪽~54쪽에서는 무왕대의 왕흥사는 사리신앙, 정도신앙, 미륵신앙, 그리고 법화신앙을 통섭하여 전제왕권을 구현하려는 왕권강화의 이념적 도량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왕도지역을 넘어 지방까지 확대시켜 불교이념을 통한 왕권의 위상 제고와 권위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33) 조경철, 「백제 무왕대 神都 건설과 彌勒寺·帝釋寺 창건」, 『백제문화』41, 2008.

34)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출토 이전에도 백제 무왕과 익산, 그리고 미륵사지를 둘러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9년 사리장엄 출토 이후에 관련 학술대회가 여러 차례 개최됨으로써 많은 연구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 신라 관계」,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2009a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 『新羅史學報』16, 2009b ;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37호, 2009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정국운영」, 『

면, 639년에 백제의 사택왕후가 무왕의 祝壽를 기원하기 위해 사찰을 만들고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³⁵⁾ 미륵사 건립의 주체로 사택씨 왕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륵사 건립의 주체로 선화공주·백제 왕후와 沙宅氏 모두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익산 경영과 미륵사 창건을 이끌어 낸 武王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³⁶⁾

武王 후기에 벌어진 對신라전에서 백제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武王代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창건은 彌勒佛國의 理想을 실현하고 국력을 통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즉, 미륵사 건립은 왕실과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이러한 규모의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것은 무왕의 통치정책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³⁸⁾

III.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의미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의 문헌 연구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서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불교 진흥책, 그리고 위덕왕의 능사와 왕흥사 조영, 무왕의 왕흥사 완공과 미륵사 창건 등의 대역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성왕이나 위덕왕이 아닌 법왕을 백제사의 ‘興法’의 왕으로 선택하여 ‘法王禁殺’조를 「흥법」편에 배치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法王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재위하지 않아서 성왕이나 위덕왕, 그리고 무왕보다 혁혁한 興法을 주도한 군주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禁殺生命’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³⁹⁾

新羅史學報』16, 2009 ; 박현숙, 「百濟 武王의 益山 경영과 彌勒寺」, 『韓國史學報』36호, 2009 ; 李道學, 「彌勒寺址 西塔 「舍利奉安記」의 分析」, 『白山學報』83, 2009 ; 정재윤, 「彌勒寺 舍利奉安記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學報』37호, 2009 등이 참조된다.

35) 미륵사지 석탑 출토 舍利莊嚴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귀영,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舍利莊嚴의 의의」, 『익산 百濟 彌勒寺址의 재발견』,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기념 2009년 학술대회, 2009, pp. 111~31 참조. 金製舍利奉安記의 원문과 해석은 김상현, 「미륵사 서탑 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2009, pp. 139~140 참조.

36) 박현숙, 앞의 논문, 2009, pp. 348~349.

37) 박현숙, 위의 논문, 2009, p. 350.

38) 최연식, 앞의 발표문, 2011, p. 64.

『삼국유사』 「홍법」편 ‘법왕금살’조는 백제의 法王이 불교의 不殺生 戒律에 충실하여 수렵과 어로기구들을 모두 불사르는 등 禁殺을 왕명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難陀關濟’ 이후 백제의 興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으로 『삼국유사』에 선정된 것이다. 『삼국유사』 「홍법」편 ‘법왕금살’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 『삼국사기』 법왕 관련 기사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D. ① 백제 제29대 法王의 이름은 宣 혹은 孝順이라고 한다. 開皇 19年⁴¹⁾ 己未에 즉위하였다. 이 해 겨울에 詔書를 내려 살생을 금지하게 하여, 민가에서 기르는 鷹鷂 등을 놓아주고 漁獵의 도구를 불사르게 해 일체 금지하였다.

이듬해 경신년에는 30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주고 그 당시의 서울인 사비성(지금의 부여)에 王興寺를 세웠는데, 겨우 터를 닦아 놓고 세상을 떠났다. 武王이 왕위를 이으니 아버지가 터를 닦은 것을 아들이 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낙성시켰다. 그 절 이름을 또한 彌勒寺라고도 한다. 산을 등지고 물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며, 꽃과 나무가 수려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왕은 언제나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절에 가서 그 지형과 경치의 장엄하고 수려함을 구경하였다.(古記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다. 무왕은 가난한 어머니가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薯童인데, 즉위한 후에 謚號를 武王이라고 하였다. 이 절은 처음에 왕비와 함께 창건한 것이다.)

讚하기를,

날 짐승과 길 짐승에 대한 너그러움은 千丘의 은혜요.

산 짐승과 물고기에 대한 덕택의 흠족함은 四海의 仁이다.

聖君이 갑자기 떠남을 말하지 마라.

도솔천 하늘에는 꽃 피는 봄이 한창이리오.

(『삼국유사』 권3, 「홍법」 ‘法王禁殺條’⁴²⁾)

39) 조경철, 앞의 논문, 2010, 14쪽에서는 법왕이 12월에 내린 ‘禁殺生命’이 실행되었으나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보았다. 즉, 아버지 혜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도 분위기에 맞추어 내려진 조치로 생각한 것이다.

40) 金福順, 앞의 논문, 2000, p. 91.

41) 법왕의 즉위년을 開皇 10年 己未라고 하였다. 開皇 10년의 간지는 庚戌로 590년이므로, 위덕왕 37년이다. 己未의 간지에 해당되는 해는 599년으로 開皇 19년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開皇 19년으로 고쳐야 한다. 김주성, 「백제 법왕과 무왕의 불교정책」, 『마한백제문화』15, 2001, p. 46.

42) 『三國遺事』 권3, 「興法」 法王禁殺條, “百濟 第二十九主 法王 諱宣 或云孝順 開皇十九年 己未 卽位 是年冬. 下詔禁殺生 放民家所養鷹鷂之類 焚漁獵之具 一切禁止. 明年 庚申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泚城 [今扶餘] 始立栽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畢成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之美具焉 王每命舟 沿河入寺 賞其形勝壯

② 法王의 이름은 宣 혹은 孝順이라고 한다. 혜왕의 맏아들이다. 惠王이 죽자, 아들 宣이 왕위를 이었다.(隋書에는 宣을 昌王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겨울 12월에 숲을 내려 살생을 금지하여 민가에서 기르던 鷹鷄를 거두어 놓아주고 漁獵의 도구를 불태웠다.

2년 봄 정월에 王興寺를 창건하고 僧 3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크게 가물어 왕이 漆岳寺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여름 5월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法王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法王’條)⁴³⁾

사료 D. ①의 『삼국유사』에서는 ‘혜왕의 맏아들이다.’라는 서술이 누락되어 있고, 그 대신에 ‘開皇 19년’이라는 즉위년이 보인다. 그리고 禁殺生命에 대해 적고 있으며, 법왕 2년에 僧 30인에 대한 도첩과 왕흥사에 대한 조영 시작, 무왕대의 왕흥사 완성, 그리고 왕흥사를 미륵사라고도 했다는 점, 왕흥사의 수려한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古記의 기록을 인용하여 『삼국유사』 제 2편 「紀異」 武王조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으며, 법왕의 禁殺生命 실시에 대해 聖君이라며 讚하고 있다.

법왕에 대한 기록을 먼저 정리했을 사료 D. ②의 『삼국사기』에서는 법왕 원년조에 왕의 이름과 즉위과정, 겨울 12월의 禁殺生命, 법왕 2년의 왕흥사 창건과 僧 30인에 대한 도첩, 칠악사에서의 기우제, 여름 5월의 왕의 죽음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 ‘法王禁殺條의 내용을 『삼국사기』와 비교해 보면, 법왕의 계율 시행에 대한 기록이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도 법왕의 즉위과정에 대한 異說을 싣고 있는 『隋書』의 기록을 의식하였는지, 혜왕과의 부자관계 등은 삭제하고 대신 ‘開皇 19년’이라는 즉위년을 적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一切禁止’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법왕금살’조의 내용은 민가에서 기르는 매 종류 등을 놓아주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사냥도구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지, 모든 동물을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원광의 殺生有擇에 대한 해석을 연상시키다. 법왕이 선포한

麗[與古記小載小異 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 小名薯蕷 卽位後諡號武王 初與王妃草創也]. 讚曰 詔寬狹千丘惠 澤洽豚魚四海仁 莫道聖君輕下世 上方兜率正芳春.

43)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第5, 法王條, 法王 諱宣[或云孝順] 惠王之長子 惠王薨 子宣繼位[隋書 以宣爲昌王之子. 冬十二月 下令 禁殺生 收民家所養鷹鷄 放之 漁獵之具焚之. 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大旱 王幸漆岳寺 祈雨 夏五月 薨 上諡曰法.

禁殺生命도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⁴⁴⁾ 삼국이 지난한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일체의 살생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一切禁止’는 모든 살생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율의 실천을 통해 살생을 자제하고 불법을 실행하고자 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저본으로 『삼국유사』에서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법왕이 禁殺生命을 내리고 난 이듬해인 2년 정월에 “創王興寺 度僧 30人”이라고 하여 法王 때 왕흥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法王이 왕흥사의 기초만을 다지고 武王代에 왕흥사가 완공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 제 3편 「흥법」 이전에 제 2편 「기이」 ‘武王’조에서 武王의 미륵사 창건 설화를 古記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조에서는 무왕 35년에 준공된 사찰로 왕흥사만이 보이고 미륵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 ‘法王禁殺’조를 기록하기 위해 『삼국사기』 ‘백제본기’, ‘법왕’조와 ‘무왕’조, 그리고 『삼국유사』 ‘기이’편 ‘武王’조 사이의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무왕 35년에 왕흥사가 완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법왕대에는 왕흥사의 기초만 다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법왕대에 왕흥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같이 ‘봄 정월에 王興寺를 창건하고 僧 3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고 하지 않고, 『삼국유사』에서는 ‘30인에게 도첩을 주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왕흥사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法王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국유사』 제 2편 「기이」 ‘武王’조에서 무왕대에 만들어졌다고 한 미륵사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국사기』 ‘武王’조에서 ‘무왕 35년에 준공되었다’고 한 ‘왕흥사’를 ‘미륵사’와 같은 사찰로 이해하여, ‘法王禁殺’조의 ‘왕흥사’와 관련하여 ‘미륵사라고도 불리웠다’라는 『삼국사기』에 없는 기록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대부분이 인용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유사』는 서술에 대한 전거를 거의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찬자는 인용된 원사료에 대해서 異見이 있거나 보충 설명의 필요를 느낄 때 夾註나 내용 추가 등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삼국유사』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찬술태도로 인하여 『삼국유사』는 인용된 원사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서로서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 주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⁴⁵⁾

44) 김주성, 앞의 논문, 2001, pp. 47~48.

『삼국유사』 「흥법」편에서 興法の 왕으로 聖王이나 威德王·武王이 아닌 法王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사료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삼국유사』 집필 시에 삼국의 정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를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⁴⁶⁾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온전하게 『삼국사기』로 표기하거나, 혹은 허다한 대목에서 『국사』나 『삼국사』 등으로 불러 인용하였다. 인용의 대체적인 맥락은 『삼국사기』와는 다른 정보를 담은 자료와의 對校에 있었다. 대교에 의해 도출되는 판단 및 평가는 직접적인 형태로, 간혹 문맥 가운데 스며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삼국유사』 작업시에 이루어진 대교의 결과는 『삼국사기』에 크게 신뢰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삼국유사』 찬자에게 있어 『삼국사기』는 삼국의 근본 사서였기 때문이다.⁴⁷⁾ 『삼국유사』 찬자는 신앙의 이적에 대한 존중과 별개로 역사적 사실의 고증에 있어서 지극히 합리적인 기준에 충실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⁴⁸⁾

『삼국유사』 「흥법」편을 집필하면서 『삼국사기』를 근간으로 하였다면, 침류왕 이후 백제사에서 흥법과 관련하여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법왕의 禁殺令과 관련된 일련의 불교진흥책이었다. 백제에서는 침류왕 원년이라는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였지만, 무령왕 이전까지 백제의 불교는 그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武寧王代까지만 해도 백제에서 불교가 배타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왕 이전에 이루어진 성왕의 대통사 창건도, 위덕왕의 능사 창건과 왕흥사 조영도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삼국사기』에 의거하면, 침류왕 이후 의미 있는 불교 관련 기사가 보이는 것은 法王代인 것이다. 따라서 ‘法王禁殺’조가 『삼국유사』 「흥법」편에 수록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法王이라는 왕호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왕 뿐만 아니라, 성왕·위덕왕도 불교식 왕호로 해석될 수 있다.⁴⁹⁾ 성왕은 전륜성왕에서 유

45) 박현숙, 앞의 논문, 2012, p. 115.

46) 이강래,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0, 2005, p. 296에서도 『삼국유사』가 신라 불교의 시초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가 가장 의미 있는 전거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7) 이강래, 위의 논문, 2005, pp. 294~295.

48) 李基白, 앞의 논문, 2000, pp. 5~6.

49) 조정철, 앞의 논문, 2006, pp. 21~24 참조.

래한 것으로 보이며,⁵⁰⁾ 위덕왕도 「관세음보살수기경」에서 석가의 전신으로 나타난다.⁵¹⁾ 법왕이라는 시호는 계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까닭에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법왕의 孝順이라는 이름이 유학에서 널리 쓰이기도 하지만, 孝順이라는 이름 역시 법망경에 대한 이해에서 연유된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⁵²⁾

法王은 『법화경』을 위시한 불경에서 흔히 釋迦를 말한다. 불교에서 세간의 군주를 말할 때 人王, 출세간의 군주를 말할 때 法王이라고 하였다.⁵³⁾ 백제 당대인들이 불교식 왕호 가운데서도 ‘法王’이라는 특별한 시호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불심이 돈독하고 불교 진흥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연 스님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신라의 法興王과 백제의 法王이라는 왕호는 이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연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삼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서술의 근간이 되었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과 법왕이라는 시호에 따르는 백제인들의 평가는 ‘法王禁殺’조를 신라의 ‘原宗興法·厭讎滅身’에 견줄만한 백제사의 興法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왕호 뿐 아니라, 불교진흥책에서 나타나는 백제 법왕과 신라 법흥왕과의 공통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 「흥법」편에 보이는 신라 ‘原宗興法·厭讎滅身’조의 법흥왕은 백제 법왕 즉위년(599년)에 앞서서 재위 16년(529)에 ‘禁殺生命’을 내리고 있다. 신라의 법흥왕과 백제의 법왕은 시호 뿐 아니라 불교 진흥책에 있어서도 ‘禁殺生命’이라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 찬자는 신라 법흥왕과 같은 흥법의 왕으로 백제 법(흥)왕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신라 ‘原宗興法·厭讎滅身’조와 짝하여 백제의 ‘法王禁殺’가 『삼국유사』 「흥법」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삼국유사』 「흥법」편 ‘法王禁殺’조 마지막 부분에서도 讚을 두어 법왕의 禁殺生命의 조치에 대해 聖君이라며 칭송하고 있는데, 讚의 내용을 살펴보면 法王을 신

50) 김영태, 앞의 책, 1990, p. 144.

51) 조경철, 앞의 논문, 2006, p. 23. “위덕세존이라 불린 『법화경』의 대통불과 「관세음보살수기경」의 위덕왕이 모두 석가의 전신임을 감안할 때, 위덕왕이란 왕호는 석가족의 계보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52) 김수태, 「백제 법왕대의 불교」, 『선사와 고대』15, 2000.

김주성, 앞의 논문, 2001, p. 48.

53) 조경철, 앞의 논문, 2006, p. 24.

라 法興王에 비견되는 백제 興法の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 「흥법」편은 한국 고대 불교의 興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들을 고민하여 설정하고, 이를 충실하게 고증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맺음 말

『삼국유사』 「흥법」편에서는 백제의 불교 수용을 다룬 ‘難陀關濟’조와 불교 진흥책을 기록한 ‘法王禁殺’조를 백제사의 興法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삼국유사』 「흥법」편 ‘법왕금살’조는 백제의 法王이 불교의 不殺生 戒律에 충실하여 수렵과 어로기구를 모두 불사르는 등 禁殺을 왕명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難陀關濟’ 이후 백제의 興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헌 연구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성왕대의 대통사 창건과 불교 진흥책, 그리고 위덕왕대의 능사와 왕흥사 조영, 무왕대의 왕흥사 완공과 미륵사 창건 등의 대역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성왕이나 위덕왕이 아닌 법왕을 백제사의 ‘興法’의 왕으로 선택하여 ‘法王禁殺’조를 「흥법」편에 배치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국유사』 「흥법」편에서 백제 興法の 왕으로 法王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첫째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사료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法王이라는 왕호 때문이다. 백제 당대인들이 불교식 왕호 가운데서도 ‘法王’이라는 특별한 시호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불심이 돈독하고 불교 진흥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삼국유사』 찬자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신라의 法興王과 백제의 法王이라는 왕호는 이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라의 법흥왕과 백제의 법왕은 시호 뿐 아니라, 불교 진흥책에 있어서도 ‘禁殺生命’이라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흥법」 ‘法王禁殺’조 마지막 부분에서도 讚을 두어 법왕의 禁殺生命의 조치에 대해 聖君이라며 칭송하고 있는데, 讚의 내용을 살펴보면 法王을 신라 法興王에 비견되는 백제 興法の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찬자는 신라 법흥왕과 같은 흥법의 왕으로 백제 법(흥)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는 나름의 합리적인 고증을 시도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고 한 역사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사의 「흥법」과 관련하여 ‘법왕금살’

조를 설정한 것이다. 『삼국유사』 「홍법」편은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삼국사기』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삼국시대 불법의 성쇠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정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삼국유사』 「홍법」편은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데서 의미를 가진다.

[논문투고일 : 1월 21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11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14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2. 단행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2008.
- 김영태,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사, 1990.
- 이남석·서정석, 『大通寺址』, 公州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 公州市, 2000.
-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3. 논문류

- 金福順, 「『三國遺事』 「興法」篇과 中古期の 설정」, 『慶州史學』19, 2000.
- 金相鉉, 「百濟 威德王代の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扶觀音」, 『韓國古代史研究』15집, 1999.
- 金壽泰, 「百濟 威德王代の 扶餘 陵山里 寺院의 創建」, 『百濟研究』27집, 1998.
- 金台植,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 『文化史學』28호, 2007.
- 길기태, 「百濟 威德王의 능산리 사원 창건과 제의」, 『백제문화』41, 2009.
- 김상현, 「미륵사 서탑 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2009a.
-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37호, 2009b.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 신라 관계」,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2009a.
-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 『新羅史學報』16, 2009b.
- 김수태, 「백제 법왕대의 불교」, 『선사와 고대』15, 2000.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정국운영」, 『新羅史學報』16, 2009.
- 김주성, 「백제 법왕과 무왕의 불교정책」, 『마한백제문화』15, 2001.
- 박현숙, 「百濟 武王의 益山 경영과 彌勒寺」, 『韓國史學報』36호, 2009.

- 朴賢淑, 「百濟 熊津時期的 정국과 大通寺」, 『韓國史研究』155집, 2011.
- 朴賢淑, 「『三國遺事』 「卞韓百濟」條에 투영된 百濟史 認識」, 『百濟研究』57輯, 2012.
- 蘇賢淑,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2. 2009.
- 손환일, 「백제 왕흥사지 출토 청동사리함명문의 서체」,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의 의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 신종원, 「삼국의 불교 初傳者와 초기 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4, 2006.
- 신종원, 「『三國遺事』 原宗興法 厭濁滅身條 譯註」, 『겨레문화』10, 1996.
- 梁起錫, 「百濟 王興寺의 創建과 변천」, 『百濟文化』41, 2009.
-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 王興寺의 創建과 背景」, 『文化史學』29호, 2009.
- 이강래,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0, 2005.
- 이기백, 「백제 불교 수용연대의 검토」, 『진단학보』71·72합집, 1991.
- 李基白, 「『三國遺事』興法篇의 趣旨」, 『震檀學報』89, 2000.
- 李南奭, 「百濟 大通寺址와 그 出土遺物」, 『호서고고학』6·7집, 2002.
- 李道學,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 分析을 통해 본 百濟 威德王의 政治와 佛教」,
『韓國史研究』142, 2008.
- 李道學, 「彌勒寺址 西塔『舍利奉安記』의 分析」, 『白山學報』83, 2009.
- 鄭求福,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
院』, 1987.
- 정재윤, 「彌勒寺 舍利奉安記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學報』
37호, 2009.
- 조경철, 「동아시아의 불교식 왕호 비교」, 『한국고대사연구』43, 2006.
- 조경철, 「백제 무왕대 神都 건설과 彌勒寺·帝釋寺 창건」, 『백제문화』41, 2008.
- 趙景徹, 「百濟 聖王代 儒佛政治理念」, 『韓國思想史學』15집, 2000.
- 조경철, 「백제 왕흥사의 창건과정과 미륵사」, 『史叢』70, 2010.
- 趙景徹, 「百濟 웅진 大通寺와 大通信仰」, 『百濟文化』36집, 2007.
- 趙源昌, 「公州地域 寺址研究」, 『百濟文化』28집, 1999.
- 차용걸, 「백제의 제천사지와 정치체제의 변화」, 『한국학보』11, 1978.